

보험사, '신제도·RBC·금리' 삼중고... 자본확충 부담 ↑

〈지급여력〉

내년 IFRS17, K-ICS 등 도입 제도 교차시기... 자본건전성 비상 급격한 금리인상 기조도 부담 작용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도입이 다가오며 보험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기존 지급여력(RBC)비율 관리까지 덮쳤다. 최근 금리인상에 따라 보험사들의 자기자본 확충이 발등의 불이다.

◆RBC비율 떨어질라...보험사 '영끌'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지난달 31일 3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IFRS17 및 건전성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자본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신종자본증권 발행 이후 흥국화재의 RBC비율도 올 1분기 146.7%에서 151.0%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메리츠화재도 2960억원 규



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바 있다. RBC비율 증대를 위해서다. 지급여력 금액은 2960억원 만큼 늘어나 지난해 기준 207.45%에서 15.09%포인트(P) 가량 개선된 222.5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에는 흥국·농협·DGB생명·한화손보도 줄줄이 신종자본증권 발행했다. 흥국생명엔 기발행한 350억원의

신종자본증권 리파이낸싱(보유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다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거래의 한 형태) 및 150억원의 후순위채권을 조기상환 후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농협생명과 DGB생명은 각각 6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사채, 95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며 뒤를 이었다.

이들 모두 RBC비율 관리를 위한 자

본건전성 확보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내년, 'IFRS17' 코앞"

IFRS17과 K-ICS 도입을 앞두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셈이다. 두 제도의 도입 시기는 오는 2023년으로 반년 여 앞으로 다가왔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럴 경우 보험사들의 부채가 현재보다 크게 늘어나게 된다. 요구 자본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자칫하면 RBC비율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사들의 RBC비율은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여파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RBC비율이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보험업법에서 RBC비율을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금감원에서는 150%를 권고 기준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RBC비율이 올해 끝나는 정 책이라는 것. 내년부터 IFRS17이 도입 되는 만큼 무의미한 자본확충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제 건전성을 나타내는 IFRS17과 K-ICS이 도입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금리인상까지 겹치며 보험사들의 부담도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3~4%대였던 보험사 신종자본증권 금리는 최근 6%까지 뛰었다. 실제 가장 최근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흥국화재의 금리는 6.50%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도 "RBC의 경우 올해까지만 유지되고 없어지는 지표이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인상을 예상 하지 못한 보험사들은 대부분 내년 신제도 도입을 대비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차기 금융위원장 김주현 내정

온화·소통 금융전문가... 규제개혁 '키맨' 전망

김 내정자, 예보사장 등 역임 카드사 오픈뱅킹서비스 앞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 /금융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금융위원장에 금융 전문가인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지명했다. 김주현 내정자는 현재 금융시장의 위기 극복과 금융권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데 책임자라는 평가다.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1958년 생으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이후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무부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김 위원장은 공직에서 물러난 뒤 예 금보험공사 사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2019년 6월부터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맡았다.

김 내정자는 여신금융협회장 취임 후 오픈뱅킹 등 서비스에 카드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카드사 오픈뱅킹 서비스 시행에 앞장섰다.

당시 김 내정자는 "카드사들이 디지털 혁신을 통해 신용카드업을 넘어 종합금융업자로 발전해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위원장과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하는 금융소비자보호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면서 카드사들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할 수 있는 조치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

카드사에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정착할 수 있게 힘썼다.

업계에서는 김 내정자 취임 후 소상공인 등 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 대출

규제 완화, 산업은행 부산이전 등을 가장 먼저 추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잔액은 1895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4.3%로 가장 높다. 가계대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생애 첫 주택구입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높이고 1주택자에 대해서도 LTV를 70%로 일원화하겠다고 약속해 금융당국의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하면서 LTV를 보완하는 방식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오는 9월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치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 잔액은 약 133조4000억원으로 잠재 부실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내정자는 금융권에서 온화하고 소통이 뛰어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김주현 "시장 불안요인 적극 대처"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확고한 국민의 관심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다하겠다"며 "시장 불안 요인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후보자는 7일 후보자 지명 후 여신금융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쉽지 않은 국내외 여건에 대처하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되어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근 시장 불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 상황에 따른 국제 정치적 구조 변화에 따른 파급 영향이 복합되어 발생하고 있다"며 "미래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상력을 길러 예상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상황에 따라 보다 창의적

인 정책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과 취약 부분 지원을 통한 건전한 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로 저성장과 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민간 기업의 역동적인 혁신과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민간금융과의 금융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자는 "금융 측면에서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우리 사회가 건전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비스포크로 공간·경험·시간 확장... '풍요로운 홈 라이프' 선사"

삼성전자 '비스포크 홈' 글로벌 행사

삼성전자가 전세계에 더 진화한 비스포크 홈으로 '풍요로운 홈 라이프'를 전달한다.

삼성전자는 7일 온라인에서 '비스포크 홈 2022' 글로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2년형 비스포크 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비스포크 홈을 처음으로 글로벌 시장에 소개한 데 이어, 한층 업그레이드된 성능

과 편의성으로 본격적으로 공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공간의 확장'과 '경험의 확장', '시간의 확장' 등 3가지를 강조했다. 집안의 모든 장소를 맞춤형으로 만들어 스마트 싱스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이 변해도 제품을 계속 사용하며 지속 가능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사

장은 "삼성 비스포크 홈은 맞춤형 제품에 AI 기술을 더해 가진 경험의 중심을 소비자로 전환해왔다"며, "비스포크 홈을 공간·경험·시간의 차원에서 확장해 글로벌 가진 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냉장고 등 주방가전 뿐 아니라 세탁기와 건조기 등 리빙 가전 제품도 해외 시장에 본격 진출 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삼성전자는 친환경 기술 확대 의

지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리 조각과 같은 산업폐기물을 최소화해 토양 오염을 예방하고, 폐유나 페인트 등은 연료로 재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경우 산업폐기물 재활용률을 2019년 93%에서 2021년 98%까지 확대한 바 있으며, 2024년까지 10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글로벌 친환경 아웃도어 브랜드인 파타고니아와 미세 플라스틱 배출을 저감하는 세탁기 개발을 진행 중



삼성전자 이재승 생활가전사업부 사장이 비스포크 홈 2022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이며, 해당 기능이 탑재된 신제품을 연내 한국에 우선 도입하고 내년 해외 출시도 준비 중이다. /김재용 기자 juk@